

# 전세사기 피해주택 LH 매입사업 효과 ‘쏙’

### 국토부, 경매 등 안료 44호 분석...회복률 78%

### 피해 광주 396건·전남 957건...“일상회복 올인”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사업에 따른 피해보증금 평균 회복률이 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사업으로 피해주택 매입 및 배당금·경매 차이 산정 등까지 완료된 44호를 분석한 결과, 피해보증금 대비 평균 피해 회복률은 78% 수준이라고 1일 밝혔다.

44호 중 우선매수권 행사를 통한 경매

낙찰은 32호, 협의매수는 12호다. 협의매수의 경우 LH 감정가에서 협의매수 가격을 뺀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경·공매를 통해 매입한 32호 중 28호는 후순위 피해자다.

이들의 평균 피해금액은 1억2400만원이다.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전 경·공매 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금액은 평균 4700만원으로 피해

보증금의 37.9%에 불과했다. 하지만, 관련법 개정에 따라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고 경매 차익을 지원, 후순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4400만원을 추가 보전받아 평균 회복 금액은 총 9100만원으로 높아졌다.

이는 최소한 최우선배금을 보장하는 경우(피해회복률 55%) 보다 1.3배 이상 더 높은 수준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기준 피해자로부터 총 9889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업요청을 받았고, 이 중 2250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 매입 가능 사실을 통보했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모두 307호다.

국토부는 피해자들의 빠른 피해회복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신속 매입을 추진 중이다.

지난 2월에는 피해자들이 조기에 매입 가능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LH와 함께 패스트트랙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윤리 매입 가능여부 판단 이후에는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조기에 이뤄져 실질적 피해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원 등 관계기관과 지속 협의하고 있다.

한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달 3차례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고 심의,

873건을 추가 피해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2만8866명으로 늘었다. 이 중 광주는 396건(1.3%), 전남은 957건(3.3%)이다.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7.42%)에서 피해가 많았고,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30.46%), 오피스텔(20.75%), 다가구(17.86%) 등 순이다.

연령별로는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20세 이상 30세 미만 7418건, 30세 이상 40세 미만 1만4039건)에 피해가 집중됐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 ECONOMY

2025년 4월 2일 수요일

### 대·중소 상생 스마트공장 구축

### 중기중앙회, 삼성전자 멘토링 등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부 주관 ‘대·중소 상생형(상생)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도입기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부, 삼성전자와 함께 지난 2018년부터 약 1200억원 규모로 2367개사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모델로 정착, 중소·중견기업의 혁신 기반을 마련해왔다.

올해 사업은 상생형(고도화) 스마트공장, 지자체 연계(기초) 스마트공장 지원 등으로 진행되며 총 213억원 규모로 200여개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상생형(고도화) 스마트공장은 실시간 공정제어 및 설비제어·프로세스 자동화 등이 가능한 고도화 수준 구축을 대상으로 총 80개사, 기업당 최대 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부터 추진된 ‘지자체 연계(기초)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은 기초 수준의 스마트공장 구축이 절실한 중소기업을 위해 올해 규모와 예산이 확대됐다. 10개 지자체와 협업체 총 105개사, 최대 8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참여한 충북도, 전남도, 광주시, 경남도, 부산시, 전북도를 포함해 올해 강원도, 대구시, 경북도·구미시, 포항시까지 총 10개 지자체가 참여한다.

대·중소 상생형(상생)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는 삼성과 거래관계가 없는 중소·중견기업도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기업에게는 삼성전자 현직 전문가(170명)의 제조현장 혁신활동 멘토링(3인 1조, 6~10주 업체 상주근무), 판로개척을 위한 스마트비즈니스 챗봇, 삼성 교육 인프라 활용을 통한 사후 유지관리 등의 차별화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대·중소 상생형(상생)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통해 스마트공장 구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내를 포함한 해외 판로개척, 기술지원 등 중소기업 매출창출 기회와 새로운 경영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지원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프로모션

### 내달까지 네이버페이 쿠폰 지원

중소기업중앙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4·5월 두 달간 ‘노란우산 온라인 가입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해당 기간 노란우산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가입한 신규가입자 전원에게 네이버페이 3만원 쿠폰을 지급한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 나 사망, 노령 등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에 필요한 퇴직금 제도,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와 무등록 소상공인도 가입할 수 있다.

납입금액은 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설정할 수 있으며, 가입 기간은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까지이다. 업주의 절세전략으로도 잘 알려진 노란우산은 기존 소득공제 상품과 별도로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또 사업소득 금액에 따라 최대 154만 원까지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적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이 지난 3월 누적가입자 300만명을 달성했다”며 “앞으로도 소기업·소상공인이 마음 놓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다양한 복지혜택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 4월 전통주 담양 죽향도가 ‘대대표 블루’

### 유기농 쌀·토종별곡 사용 프리미엄 탁주 명성

전남도는 4월을 대표하는 이달의 전통주로 담양 죽향도가(대표 장유정)의 ‘대대표 블루’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죽향도가의 대대표 블루(탁주, 알코올 6%)는 담양에서 자란 100% 유기농 쌀과 토종별곡을 사용해 저온 숙성 과정을 거쳐 탄생한 프리미엄 지역 특산주로, 목넘김이 부드러운 특징을 갖고 있다. 탄산감이 적어 첫맛은 깔끔하고 끝맛은 달달한 꿀향은 은은하게 남아 깊은 여운을 준다.

품질은 이미 정평이 나 있다. 각종 품평회에서 3회 대상을 수상하며 명실상부 최고의 우리술로 자리매김했다.

또 전문가 평가뿐만 아니라 온라인 마켓에서의 소비자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다. 1만개 이상의 리뷰에서 평점 4.84점을 기록하며 소비자들에게 인정받고 있다. 저온 숙성공법을 통한 아



세트알데히드 성분 제거로 두통을 유발하는 숙취가 덜해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박상미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남도 우리술 품평회, 박람회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전통주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전남의 우수한 전통자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마케팅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대표 블루는 전남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와 자체쇼핑몰(<http://jhdg.co.kr>)에서 600ml 7명 기준 2만5700원에 판매되고 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도다리 속국으로 원기보충해요” (주광주신세계가 본관 지하 1층 식품관에서 제철을 맞은 속국과 도다리를 요리하기 간편하게 손질해 판매한다. ‘볼 도다리, 기을 전이’라는 말이 있듯이 봄을 상징하는 대표 수산물인 도다리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 함량은 적은 건강식이다. 속은 면역기능 향상과 혈액순환, 소염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한전, ‘역대 최대’ 투자비 12조 신속 집행

### 상반기 6조7000억 투입...구내식당 주 2회 휴무도

한국전력이 투자비 신속 집행과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민생경제 회복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1일 한전에 따르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9000억원의 투자비를 집행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9조7000억원) 대비 2조2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특히 경기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상반기 기예산 6조7000억원(57%)을 투입한다. 앞서 1분기에는 목표치(2조9000억원)

에 비해 9000억원 증가한 3조8000억원을 집행하기도 했다.

한전은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일부터 2000여명이 근무하는

나주 본사 구내식당을 주 2회(수·금 석식) 문을 닫고, 임직원의 외주식당 이용을 촉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도모할 방침이다.

또한 에너지밸리 등 특별지원지역 입주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임직원 급여

및 사회공헌 활동 시 은누리상품권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을 연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하고, 에너지효율 1등급 고효율기기 구매 시 비용의 40%를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한전과 계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자금 대출이자 감면을 지원하며, 에너지혁신 스타트업을 위한 연구개발(R&D)·사업화 자금 지원도 지난해 128개사에서 올해 157개사로 확대한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전남도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2025 오사카 K-프리미엄 소비재전’에 참가해 총 20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하고, 670만 달러 상당의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 전남 소비재, 일본 오사카서 통했다

### K-프리미엄 소비재전서

### 20만 달러 규모 수출계약

전남도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2025 오사카 K-프리미엄 소비재전’에 참가해 총 20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하고, 670만 달러 상당의 수출상담을 진행, 일본 시장 진출에 청신호를 밝혔다.

전남도는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와 함께 지역 10개 유망 중소기업의 참가를 지원했다. 이번 박람회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과 ‘2025 오사카·간사이 국제엑스포’ 개최를 기념해 기존 도쿄에서 열린 소비재전을 오사카에서 특별 개최했다. 전남도는 이 기회를 활용해 일본 시장 진출 기반을 다졌다.

지역 기업은 화장품, 식품, 유기질비료, 수산물 등 일본 소비자 취향에 맞는 제품을 집중 전시하며 현지 바이어의 큰 관심을 끌었다. 특히 신안 도초도의 천일염에 다양한 맛을 더한 프리미엄 소금을 출품한 ㈜해여름은 현장에서 일본 바이어와 20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성사시

키며 가장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이외에도 ㈜에스에이치랩(유기농 화장품), ㈜미실란(미숫가루·오곡), ㈜아라움(크리스피 오징어 스낵), ㈜큐키아(두부과자), 맑고밝고따뜻한협동조합(유자차), 청산바다영어조합법인(전복), 티즌(호박차·와인티), 봉강친환경영농조합법인(유기질 비료), ㈜동서산업(컬러 목재 칩) 등 참가기업 10개 사는 일본 94개 바이어와 상담을 진행하며 총 670만 달러에 달하는 수출상담 실적을 올렸다.

신현국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이번 박람회는 전남도와 지역 기업이 일본이라는 전략적 시장에 전남 브랜드를 직접 알리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해외 박람회 참가, 바이어 연결, 물류 지원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전남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글로벌 수출 유망 시장 중심으로 지역 기업의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이어가 전남산 소비재의 세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HD현대삼호, 스타트업에 기술 지원

### 광주창경센터 및업데에서 협력방안 모색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최근 빛고을 창업스태이션에서 대·중견기업 협력 ‘오 픈이노베이션 및업데이’를 개최했다고 1 일 밝혔다.

이번 및업데이는 대·중견기업의 수요 기술과 창업기업의 제안기술을 매칭해 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기술 실증(PoC) 지원을 통해 협업 효과를 극대화하는 첫 번째 단계로 진행됐다.

## 금호타이어, ‘휠 얼라인먼트 관리사’ 자격증

### 업계 첫 획득...기술력 향상·서비스 품질 강화

금호타이어는 업계 최초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부터 ‘타이어 휠 얼라인먼트 전문 관리사’ 민간자격증 발급 자격을 부여받았다고 1일 밝혔다.

타이어 휠얼라인먼트 전문 관리사는 다

행사는 광주창경센터, 전남창경센터, 서울경제진흥원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국내 대표 조선사인 HD현대삼호와 8개 창업기업이 참여해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 기회를 모색했다.

대·중견기업과 창업기업 간의 협업을 촉진하는 자리로 마련된 이번 및업데에서 창업기업은 자사의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했

다. 현대삼호는 자사의 오픈이노베이션 추진 이력과 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창업기업들과의 협력 가능성을 탐색했다.

한편 타이어 및 휠얼라인먼트 교정 등의 관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도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자격 획득으로 금호타이어는 타이어 및 차량 정비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

성할 수 있는 교육 및 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금호타이어는 이를 기반으로 타이어 및 정비업계의 기술력 강화와 체계적인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특화 유통망인 타이어프로의 기술력과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며 산업 전반의 서비스 품질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정현아 기자 aura@